

#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 住居의 建築的 特徵\*

龍井市 智新鄕 長財村 事例를 통해

申載億

(蔚山大學校 建築學科 副教授)

## 1. 서론

### 1-1. 연구 대상 및 목적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 마을의 건축에 대해서는 학계에 아직 체계적으로 소개된 바 없으며, 몇몇 문헌에 의해 단편적으로만 알려졌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長財村 마을은 日帝時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으로, 19세기 말부터 함경북도 지역에서 이주한 朝鮮族들이 아직도 고유한 住居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방 후의 中國 사회의 변화 속에서 朝鮮族 민가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전통 민가의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에 들어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민가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민가 연구는 주로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민가 연구에 있어서는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질름 발이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멀리 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좁게 보자면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우리의 住居문화는 한민족의 住居로서 공통적인 요소를 유지해 왔다. 물론 지리적으로, 그리고 기후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을 한 민족으로서 영위해 온 住居라는 점에서 우리의 민가는 같

은 계통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지역의 민가에 대한 자료가 우리의 민가연구에 있어 필수적이겠으나 그 동안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 동안 몇몇 단편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소개된 바 있으나, 이 자료들은 연구의 관점이 다르거나, 체계적으로 수행된 연구자료가 아니었다.

延邊의 朝鮮族 민가에 대한 연구는 張馭寰의 『吉林民居』<sup>1)</sup>에 포함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朝鮮族의 주택은 漢族의 영향을 받아, 우선 위치를 선정하고 풍수에 따라 向을 선정했다고 한다. 平面은 장방형 홀채가 기본으로, 이것은 도시 농촌을 불구하고 朝鮮族 가옥의 기본형으로, 추운 기후에 적합하게 내부생활을 위주로 平面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측조사된 長財村 마을 내의 住居들에 대한 分析을 통해, 함경북도형 민가의 典型에서부터 시대적 및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 住居 類型이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92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인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의 일부임.

1) 張馭寰 : 『吉林民居』, 중국건축공업출판사, 1983. 이 책은 길림성의 여러 소수민족들의 주거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 조선족에 대한 소개(pp. 135-154)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찾아보고 하였다. 연구조사원 長財村은 북한의 회령에서 中國의 三舍를 거쳐 龍井으로 들어가는 경로의 중간에 위치하며, 19세기말 초창기의 朝鮮族 개척민들이 이주하여 함경북도형의 住居가 주류를 이루며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은 개척의 역사가 다른 지역보다 오래 되어, 함경북도형의 원형이 잘 남아있으며, 또한 살림채의 규모가 다른 마을보다 비교적 커서, 住居의 형식에 있어서도 典型的인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마을의 한 구역은 '새마을'로 불리고 있으며, 이 구역은 中國에서의 대약진운동 시대부터 문화혁명 시기의 마을 構造를 보여 주고 있어서 이의 대비를 통해 住居 類型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더불어 최근의 개방 시대에 들어서는 예전과는 또 다른 형식의 住居 類型이 도입되고 있다. 이들의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변천의 기록에도 의의가 있겠으나, 생활 및 제도상의 차이를 같이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 1-2 연구의 방법과 한계

본 연구의 방법은 구성 연대를 중심으로 長財村 마을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별 分析을 통해 유형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그 變化하는 모습을 찾아 보고자 한다. 구역의 구분은 대체로 도로 및 자연 경계에 따른 물리적 경계와 건립시기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인 경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조사연구 수행 상의 결합에 의해서도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실측조사의 대상지가 中國이라서 현지의 교통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다. 본조사(1993년 7월 20일 - 8월 10일)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조사가 되도록 준비하였으나, 한정된 시간 상의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상세한 점들까지 연구자들이 다루지는 못하였다. 1994년 2월에 연구팀에 의해 보완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모든 공간들이 다루어 지지는 못하였다. 둘째, 실측조사의 시행에 있어 본 연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진 조사원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延邊대학생들

이 동원될 수 밖에 없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이를 시정하긴 하였으나 결과가 체계적이진 못하였다. 이처럼 정확한 실측조사가 어려웠으므로, 실측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는 分析작업은 애초부터 한계가 내포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연구의 기초가 될 만한 참고문헌이나 기존 자료가 별로 없어 특별한 分析의 관점이나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측조사를 시행하면서 각 요소들을 가능한 한 현지용어로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分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 있어서는 서술의 편의상 다음의 몇 가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1) 양통집 : 조사지역에 있어 주택의 平面형식을 지칭하는 데 흔히 쓰이는 호칭은 8간집, 혹은 6간집 등이다. 이들은 남부지방에서 흔히 쓰이는 楹집의 平面構造를 규모 별로 부르는 명칭이다. 현지에서 실제로는 양통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도 양통집이라는 호칭은 일반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리종복의 연구<sup>2)</sup>에 있어서는 '량통집'이라 부르고 있으며, 조사지역에 있어서 '외통집'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소위 '楹집'의 형식을 양통집으로 총괄하도록 한다.<sup>3)</sup>
- 2) 정주간 : 함경북도형 住居의 가장 特徵적인 공간이면서 중심공간인 부엌과 온돌을 격벽없이 터서 사용하는 정주간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호칭을 사용하며, 현지에서도 "정지"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정주간

2) 리종복 :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 출판사, 평양, 1961. 그동안 북한의 민가 연구에 있어서는 이 책을 거의 텍스트처럼 여러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다.

3) 김홍식은 『한국의 민가』(한길사, 1992, pp. 239 - )에서 楹집과 양통집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분류라고 보인다.

으로 부르기로 한다.

- 3) 경리시설, 경영시설, 수장공간, 혹은 생산시설 : 이 지역의 住居들은 모두 홑채로서 한 지붕 아래에 여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채 공간 뿐만 아니라, 외양간, 방앗간 등 남한에서는 당연히 별도로 지을 건물들이 한 건물에 모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리종목의 책에서는 경리시설로, 김홍식의 책<sup>4)</sup>에서는 경영시설로 부르고 있으며, 일반적인 용어로는 마땅한 용어가 없고 수장공간이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방 등의 수장공간과 구분하기 위해 경영시설로 부르도록 한다.
- 4) 마당 : 조사지역의 민가는 제법 택지가 넓으며 (평균 200평 정도), 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마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한 데'라고 부른다. 그러나 연구의 편의상 앞마당, 진입마당, 뒷마당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각각 담배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마당, 진입시 사용하는 마당, 텃밭이나 과일나무 혹은 작업용 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마당으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 2. 長財村 양통집의 構造

### 2-1. 양통집의 발생

우리나라의 민가 중 양통집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완성된 6칸 양통집은 이미 2천년 전 쯤에 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sup>5)</sup> 양통식 평면을 가진 민가는 우리 나라의 경우, 함경도, 강원도, 경상북도 일원을 거쳐 제주도까지 분포하고 있다. 발생 경로를 보면 함경도식이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여 경상북도 일원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함경도의 기후조건과 전혀 반대인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平面 類型이 나오는 것은 매우 흥미

롭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난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構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제주도의 상방은 함경도지방의 정주칸과 平面상 실배치의 순서나 유형에 있어 매우 흡사하다. 기후의 차이에 따라 그 출발원류는 서로 다르나<sup>6)</sup> 부엌과 온돌방 사이에 생활의 중심공간을 두어 우리나라의 보통 민가들과는 다른 平面 類型을 형성하고 있다. 원시적인 유형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 이러한 平面은 우리나라 민가의 계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 보면 가장 변두리에 위치하여 가장 원초적인 유형으로 추측된다. 양통집의 정주칸 또는 상방은 기후의 차이에 따라 그 構造가 각각 온돌과 마루라는 점이 다르나 실제의 일상 기능에 있어서는 같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연농들의 편리한 住居 類型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진다.

함경도형 住居는 소위 양통집 構造로서, 몇몇 문헌에서 이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나 거의가 리종목의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함경도 지방의 '양통집'은 "한 용마루 밑에 방들이 두겹 혹은 세겹으로 배열된 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양통집'은 모든 생활이 정주칸을 중심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平面형식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한 平面형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실내에서 집안의 여러 방들에 모두 통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남한에서는 흔히 구분되는 손님절대나 어른들의 거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랑채 공간, 외양간이나 방앗간 등의 경영공간을 모두 한 채 안에 포함하고 있

5) 김홍식 : 전계서, p. 510.

6) 조성기 : 『한국민가에 있어서의 '복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2호 p. 30. 그는 복부형의 경우 열계성이나 온돌에 대한 열공급상의 문제 때문에 침실이 집중화한 온돌형이며, 제주도형은 주침실과 여기에서 통할 관리하기 위한 수장공간이 계획상의 단위요소가 되었고, 부엌기능의 축소로 부침실이 추가로 등장한 결과이므로 이들 두 민가형의 양통형은 그 출발원류가 다르다고 보았다.

4) 김홍식 : 전계서, pp. 749 - .

다. 이러한 住居형식에 있어 중심이 되는 정주간은 조리, 식사, 난방, 취침, 가족 단란의 용도 뿐만 아니라 욕아, 산후조리, 손님접대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2-2 長財村의 양통집

조사 연구된 長財村의 住居들은 양통집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함경도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시대적인 차이에 따라 문헌 상의 함경도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함경도식은 바당과 부엌이 같은 높이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부뚜막이나 온돌부분에 비해 1자 이상 낮은 데 비해, 長財村에서는 부뚜막과 같은 높이로 부엌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러 장의 널판을 얹어 같은 높이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부엌에서 작업을 하는 주부에게 구부린 자세이긴 하지만 동선 상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봉당을 요즘의 현관처럼 구분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최근에 건축한 새로운 유형의 住居에 있어서는 현관을 완전히 구분한 平面형식이 보이는 맥락에서 보면 그 중간 형식으로 이러한 분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의 구분은 부엌공간을 구역화하고, 정주간에서 신을 갈아신지 않고 취사, 난방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동선 상의 효율성이 생기는 효과 이외에도, 봉당의 흠먼지를 제한하여 집을 깨끗이 할 수 있어서 위생 상으로도 좋을 것이다. 아궁이는 비교적 깊어서 (보통 3자 정도), 땀감의 저장공간도 포함하고 있으며, 연소를 촉진시키기 위한 풍구도 설치할 수 있다. 불을 지필 때는 널판을 걷어 낸 다음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불을 계속 때기 위해 땀감을 더 있을 때에는 위에서도 간편히 작업을 할 수 있다.

온돌은 우리의 고유한 난방방식으로 中國 동북부 漢族들의 炕(炕)과 다르다. 中國의 炕은 방바닥 전체를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방의 일부분만을 높게 하여 낮에는 걸터 앉기도 하기 때문에 그 높이가 70cm 정도로 비교적 높다. 이것은 온돌의 40cm 정도의 높이와는 매우 차이가 크며, 이러한 높이 및 平面 상의 차이는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中國의 炕은 입식생활에 적합

한 것이며, 온돌은 좌식에 적합한 형식이다.

외양간은 정주간에서 보아 온돌방의 맞은 편에 붙어 있어서 바당에서 바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라고 보인다. 함경도식에서는 벽을 두지 않았으나 延邊에서는 위생 등을 고려하여 벽을 두었다. 예전에는 외양간 뒤편에 방앗간을 두었고, 요즘에는 영농의 기계화에 따라 방앗간 대신 부엌에 딸리는 수장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 다른 경향은 근년에 들어 이 두 방을 터서 외양간으로 넓게 쓰는 집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양간을 따로 두거나 밖으로 붙이고 이 부분을 모두 수장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정주간은 부뚜막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어 부엌공간이 확장된 것처럼 보이며, 외통집의 안방에 가까운 기능을 가지고 있어 원래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한다. 정주간에 면해 있는 옷방(셋방)은 주인아저씨가 주로 사용하여 남한의 사랑방의 역할을 하며, 이 방의 북쪽에 위치하여 정주간과 연결되는 안방은 늙은 세대나 어린이들이 거주한다고 하는 데 조사마을의 경우 대부분이 고향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었다<sup>7)</sup>. 젊은이들은 한옷방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는 데 조사지역의 경우, 자녀가 별로 없고, 핵가족화하여 가구별 세대수가 단출하여 이 방도 대부분 수장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 지은 집들은 정주간과 온돌방들을 모두 터서 통간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마당의 공간은 낮은 울타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特徵이었는데, 대부분 정주간과 옷방의 사이를 막아 외부손님을 정주간에서 맞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추운 겨울에 특히 필요한 점이라고도 하겠다. 주인어른을 찾는 남자어른은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옷방으로 직접 통하도록 하는 경우<sup>8)</sup>가

7) 뒤에 실릴 강영환 교수의 논문,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주거공간 및 생활방식」에서 이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음.

8) 연변대 교수 박창욱씨와의 인터뷰중에 박교수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것이 '함경도 "감산늬"은 정주간으로 직접 나다니다'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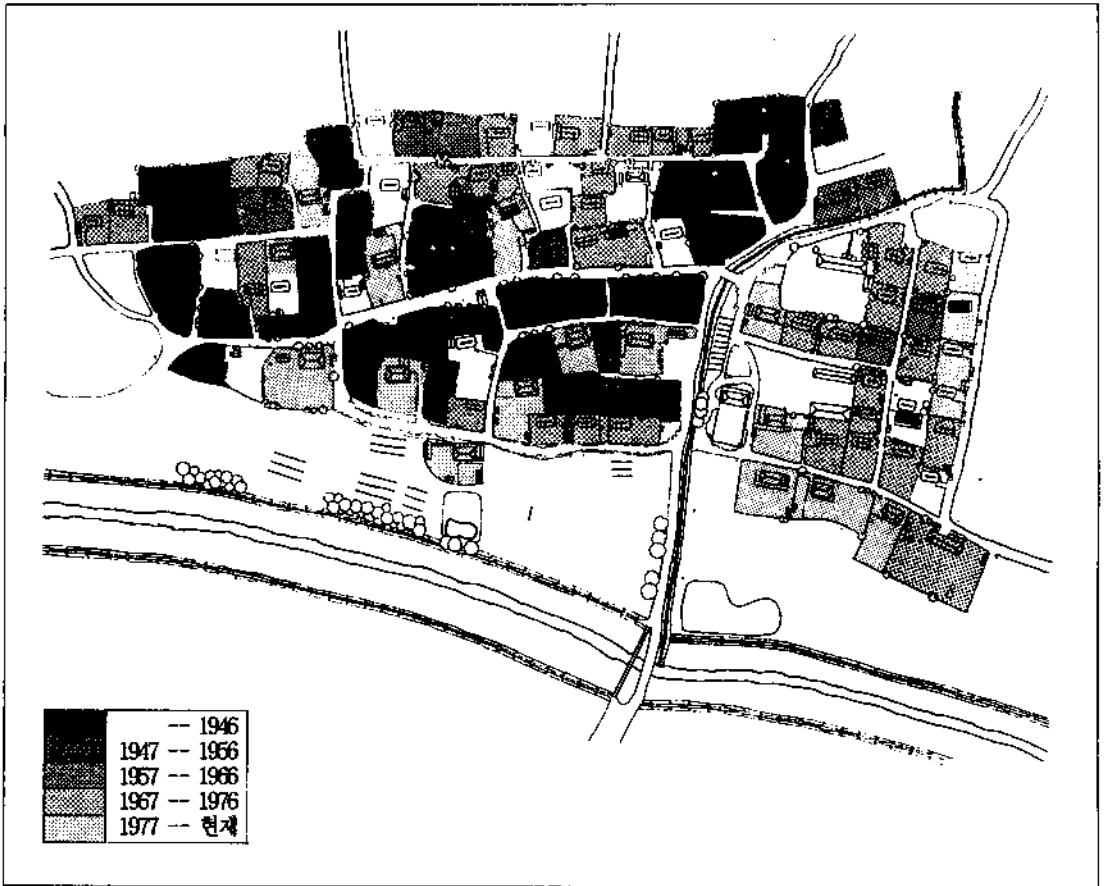


그림 1. 장재촌 가옥 배치도 : 가옥들의 건립연대

아직 남아 있으나 점차 그 수가 줄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에 들어 남녀구별의 차이가 많이 타파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 사이의 통행을 막는 낮은 울타리가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의 平面만을 대상으로 分析한다면 가족공간으로서 일상적인 거실공간인 정주칸은 개방되도록 하고, 이에 비해 손님을 맞는 등 사적인 성격이 강한 옷방은 근접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썼다. 남자는 셋방으로 들어가야하며 예전에는 아랫방 앞에 신발 벗는 데를 따로 두었다고 한다.

### 3. 長財村의 가옥배치

#### 3-1. 기본형의 추정.

長財村은 초기의 개척민들이 정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비교적 典型的인 함경북도형의 住居平面 형식을 보인다고 추정된다. 中國의 朝鮮族들 중에서 延邊지역의 朝鮮族을 '벽창호'로 부르는 이유가 이들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 住居형식은 이들의 출신지<sup>9)</sup>인 함경북도형을 고수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사지역인 長財村 지역의 典型的인 8칸집인 리종순, 립성범씨 태의 平面(그림 6 참조)은 훈춘 주변에 위치하여 두만강

9) 마을 원로들의 고향은 함경북도 명천, 혹은 화령이 많았다.

바로 북측으로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벌등촌의 8칸 기와집<sup>10)</sup> 平面과 매우 흡사한 점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경도형의 주택과 조사지역의 주택 사이의 차이는 그 平面상 마당을 입구 부분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부엌 부분은 널판을 깔았다는 점 뿐이다. 그 외 창호의 형상이나 건축의 構造 등은 함경도식과 같은 식으로 보여진다.

『吉林民居』중 朝鮮族 편을 보면 저자는 朝鮮族의 민가들에 대해 여러 요소들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다.<sup>11)</sup> 長財村의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된 주택에는 퇴가 존재하나 대부분의 집들에서는 퇴를 두지 않았다. 퇴는 셋방이나 옷방 앞에만 두어 외부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던 데 이는 내외구분을 지킨 손님접대의 경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長財村의 경우에는 7자형의 平面 類型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마을은 매우 단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 배치 및 平面 상의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시대별로 본 배치의 特徵

長財村 마을은 개척이민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국경에 가까워 끊임없이 함경도와 연결이 되어 왔으며, 소수민족으로서 中國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방 후 中國의 공산화에 따라 다른 마을들과 같이 근대에 들어 급격한 변혁을 겪었다. <그림 1>은 中國의 사회 변혁에 따른 시대구분<sup>12)</sup>에 따라 長財村 마을의 가옥들을 건립연대별로 구분해 본 것이다. 각 시기 별로 건립된 가옥의 수와 구새(굴뚝)의 방향에 대한 分析은 <표 1>과 같다. 건립연대가 조사된 가옥수는 모두 100호로, 주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거나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빠져 있다.

長財村에는 해방 전에 지어진 가옥들이 가장 많으며(35호), 개척이민 마을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20세기 초에 김약연 목사가 이 마을로 이주하여 1911년 명동학교를 건립하여 이 지역은 민족운

표 1. 건립연대별 가옥수와 구새 방향

건립연대	가옥 수	구새 방향	
		동 쪽	서 쪽
~ 1946 (해방 전)	35	14	21
1947 - 1957 (사회주의 개조시대)	8	3	5
1958 - 1965 (대약진운동시기)	7	4	3
1966 - 1976 (문화혁명시기)	31	16	15
1977 - 현재 (개방 시대)	19	11	8

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이 당시에는 현재의 명동마을까지도 같은 마을로 여겨졌다. 현재의 명동마을에 남아있는 명동교회의 목사였던 김목사는 이 마을에 거주하였다. 예전의 마을은 요즈음처럼 집들이 붙어 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었으며 좁은 길들로 둘러져 있었다고 한다<sup>13)</sup>. 주택들의 구새 방향을 서쪽에 두는 경우가 21호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사회주의 개조 시기는 1953년대 정도이나, 長財村에는 해방 후부터 사회주의 개조시기까지나 혹은 그 이후 대약진운동 시기까지 사이에 건립된 가옥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볼 때(각각 8호 및 7호), 이 시기에 있어서는 長財村이 그리 많이 변화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長財村 마을이 농촌마을로서 사회의 변화를 늦게 맞이하였던

11) 평면의 형태에 따라 1) 장방형, 즉 一자형, 2) 굽은형, 즉 7자형, 3) ㄷ자형으로 나누기도 하였으나 장방형을 다시 퇴가 전면에 모두 있는 지(全廊房), 한쪽에만 있는 지(偏廊房), 가운데만 있는 지(中廊房), 그리고 없는 지에 따라 나누었다.

12) 이 지역의 근대 역사 및 사회적 변혁에 대해서는 앞에 게재된 김봉렬 교수의 논문 참조.

13) 마을 주민 서죽송씨의 진술에 의한. 현재에도 마을 중앙에 폭 1m 정도의 좁은 길이 남아 있다.

10) 앞에 실린 김봉렬 교수의 논문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을 참조하기 바람.

것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다른 원인으로는 長材村 마을의 주민들이 매우 보수적이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대약진운동시기부터 집체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주택의 構造는 변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은 주로 마을의 외곽에 지어졌다. 수요가 많지 않아 전체 경향을 결론 지을 수는 없으나, 대지의 위치 때문인지 구세 방향은 이전과는 다르게 동쪽과 서쪽이 반반이다.

다음 시기인 문화혁명시기(1966-1976)에 지어진 가옥의 숫자가 제법 많은 것(31호)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을 동쪽에 '새마을'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마을의 중심지역에도 이 시기에 지은 가옥들이 제법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들어 마을의 전체 구조가 많이 변혁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의 면담에서도 이 시기까지는 제법 큰 규모의 집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sup>14)</sup>. 그러나 '하방'에 의해 외지사람들이 들어오고, 集體化에 따른 '集體戶<sup>15)</sup>'가 형성됨에 따라 집체생활이 본격화되었다. 주변 자연환경도 현재와 매우 달랐다. 당시까지만 해도 강가에는 나무가 울창하였고, 뒷동산에도 한아름 이상의 참나무들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마을 진입도로는 당시에는 외곽도로였다고 하며<sup>16)</sup> 큰 집을 제외하고는 공동우물을 이용하였고, 단오 등의 고유명절을 즐겼다고 한다. 집집마다 방앗간(방)이 이때까지는 존재하였다. "새마을"은 규준에 의해 형성되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지어졌다. 도로 패턴이 남북 방향의 직각도로 체계에 의했으며, 주택의 구세 방향도 도로에서의 진입방향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졌다.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의 구세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각각 16호, 15호로 각각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1976년 모택동의 사망에 따라 문화혁명이 끝나자

14) 마을 주민 신동민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 시기까지의 가옥들 중에는 사랑채(부속채)를 살림집의 양편에 둔, 제법 규모가 큰 가옥들이 있었다고 한다. 사랑방에는 3, 4 명의 일꾼들이 잘 수 있었다고 하며, 특히 문루를 2층으로 두어 어린이들이 올라가 놀기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집집마다 담장을 長材를 이용하여 높게 두른 것도 이때까지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시대별 진입위치와 구세의 방향

진입 위치	시대 구세 방향	—	1947	1958	1966	1977
		1946	1957	1965	1976	현재
남 쪽	서 쪽	8	-	1	7	-
	동 쪽	4	-	1	10	2
	소계	13	-	2	17	2
서 쪽	서 쪽	4	1	-	-	-
	동 쪽	6	3	2	4	2
	소계	10	4	2	4	2
동 쪽	서 쪽	6	2	2	6	8
	동 쪽	3	-	-	-	2
	소계	9	2	2	6	10
북 쪽	서 쪽	3	2	-	1	-
	동 쪽	1	-	1	3	5
	소계	4	2	1	4	5

개방정책이 시작하였다. 시장경제가 형성되었으며, 농촌에서도 사유재산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축산업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장공간과 축사의 증축이 성행하였다.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19호)은 특별한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을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 주택의 構造도 예전과는 달리 조적조로 되었고, 平面도 변화하였고, 건축재료도 새로운 것들을 이용하였다. 이 시기에 지은 주택들의 구세 방향은 오히려 동쪽이 많다(58%).

<표 2>는 각 시대별 진입위치와 구세의 방향을 비교해 본 것이다. 해방전에는 살림채에서 보아 남쪽의 도로에서 진입하여 구세를 서쪽에 두는 경우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살림채의 동쪽과 서쪽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같은 수이나 이 경우 진입위치와 구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集

15) 이 마을의 집체호는 1969년에 형성되었으며, 상해, 장춘, 용정에서 각각 약 30명 정도씩의 청년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16) 마을의 도로 및 예전 마을의 추정에 대해서는 앞에 실린 이규성 교수의 논문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 마을의 구성」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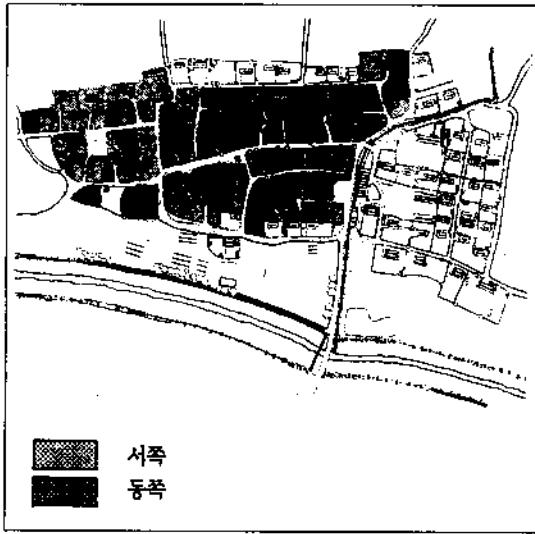


그림 2. '가구역'의 구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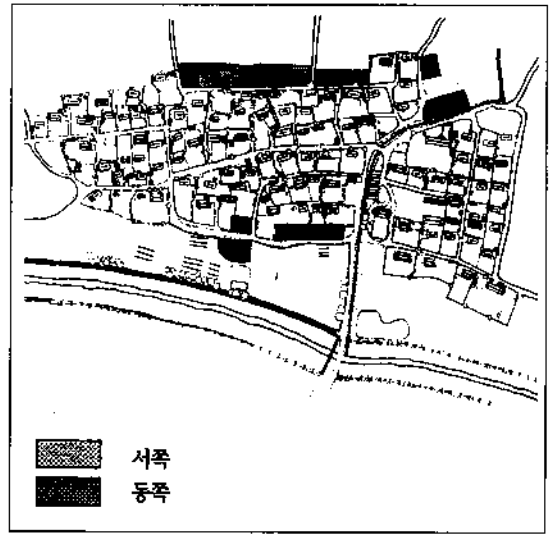


그림 3. '나구역'의 구세방향

體時期에 모든 주택에서 진입위치와 반대로 구세 방향을 두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3-3. 구역별로 본 배치의 特徵

<그림 1>을 자세히 보면 마을의 가옥들은 시대 별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대략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예전의 마을은 智新郷에서 龍井으로 가는 예전의 길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구역은 대략 해방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다. 해방 후, 그리고 대약진기간 동안 이 구역의 주변에 새로이 주택들이 생겨 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대지가 반듯하여 이전의 대지 모양과는 다르다. 文革 이후에 본격적으로 '새마을'이 마을 오른쪽에 생겨났는데 이들은 매우 규격화하였다. 개방 후의 주택들은 이러한 구역의 구분없이 여기 저기 산재하여 있다. 이 세 구역별로 그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역': 주로 해방 전에 형성된 구역으로 윗마을, 중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었다고 한다. 살림채의 平面형식은 주로 예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중앙부분에 문화혁명기의 주택들이 몇 채 있으나 기존의 構造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여, 배치의 성격도 예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의 分析을 통해 예전의 배치 및 平面형식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림 2>는 이 구역의 구세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 구역에 있어서는 구세의 방향을 서쪽으로 두는 경향(62%)을 보인다.

'나 구역': '새마을'이 형성되기 이전, 즉 문화혁명 이전이나 혁명기 중에 개별적으로 형성된 주택들로 보이며 '가 구역'과 '다 구역'의 중간 성격을 가진다. 가장 작은 규모의 살림채(4간집)이 눈에 띄는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대지의 형상도 정사각형에 가까워 공동생활의 잠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이 구역의 구세의 방향을 보여준다. 이 구역에서는 오히려 동쪽에 두는 경향(72%)을 가지고 있다.

'다 구역': '새마을'로 불리며 문화혁명기에 형성된 구역으로 보인다. 이 구역은 도로의 패턴이나 가옥구성형식이 다른 구역과



표 3. 구역별 구세의 방향

구세 방향		구분	가 구역	나 구역	다 구역	계
		조사수	68	18	25	111
구세 위치	서쪽	42	5	13	60	
	동쪽	26	13	12	51	

편이하게 다르다. 대지의 형상도 정사각형이고 도로도 직각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이 구역의 가운데 부분에 공동생활 시설인 기계방앗간과 재재소, 합작사(인민공사 상점), 문화실(유치원)을 두고 있다. 集體戶로 지어진 집이 제일 오른쪽 하단에 보인다. 주택들은 확일적으로 지어졌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남북방향의 도로를 위주로 하여 진입하며 이 경우 구세의 방향은 모두 진입위치의 반대이다. <그림 4>를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 구역에도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새로운 형식의 집들이 아래 부분에 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3>은 각 구역 별의 구세방향을 보여주며, <표 4>는 진입위치와 구세방향의 관계를 보여준다. 마을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눈 근거 중의 하나가 시대별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시대별로 따져본 바와 유사한 分析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가 구역'은 예전의 마을 구역으로서 남쪽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29.4%), 이 경우에는 서쪽으로 구세방향을 잡는 경우가 65%이다. 진입위치가 동쪽인 경우와 서쪽인 경우는 비슷한 분포를 가지며 도로를 동쪽에 두어 진입하는 경우에는 서쪽으로 구세방향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84%)이나, 서쪽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도 구세방향이 서쪽인 경우가 44%나 된다. 이에 반해 '나 구역'은 예전 마을의 주변에 새로이 첨가되다 보니 주로 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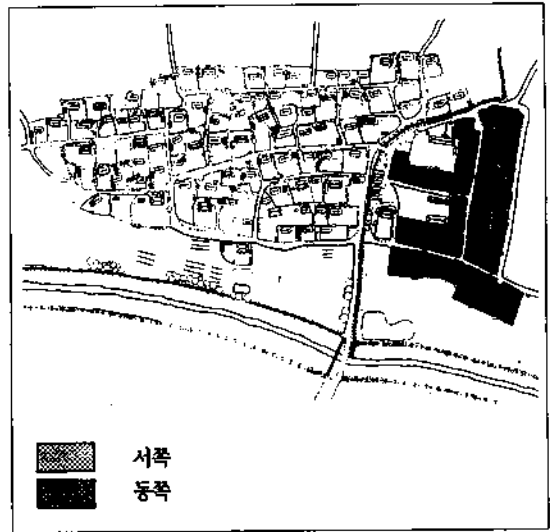


그림 4. '다구역'의 구세방향

진입하도록 배치되었다. 남쪽에서 진입하더라도 동쪽에 주로 구세방향을 둔 것은 그 당시의 경향을 보여 준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같이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된다. '다 구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격적으로 지어진 부분이라 보인다. 이 구역의 변 부분에 지어진 최근의 가옥들을 제외한다면 일률적으로 동쪽, 혹은 서쪽에서 진입하며 구세방향은 진입위치와 반대방향이다.

### 3-4. 住居의 座向

『吉林民居』에는 朝鮮族의 경우 예전에는 주택의 座向을 풍수에 의해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에서 가정한 예전의 마을은 주택의 座向을 일정한 규칙에 따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의 기와집<sup>17)</sup> 8채를 한정하여 살펴 보면 일정한 典型을 보여 준다. 천봉진 씨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른쪽 혹은 정면쪽에서 진입한다. 구세의 방향 또한 천씨택을 제외하곤 왼쪽에 위치한다. 천씨택은 지붕은 기와이지만 構造는 현대적인 점을 고려하여

17) 기와집이라 함은 조선기와를 사용한 집을 말한다. 이 마을에 있어서는 현대식으로 벽돌을 이용한 집들은 모두 현대식 기와를 이용하고 있다.

표 4. 구역별 진입위치와 구새의 방향

진입 방향	구새 방향	구역	가 구역	나 구역	다 구역	계
남 쪽	서 쪽	13	4	1		18
	동 쪽	7	7	2		16
	소계	20	11	3		34
서 쪽	서 쪽	8	-	-		8
	동 쪽	10	4	7		21
	소계	18	4	7		29
동 쪽	서 쪽	16	1	11		28
	동 쪽	3	1	-		4
	소계	19	2	11		32
북 쪽	서 쪽	5	-	1		6
	동 쪽	6	1	3		10
	소계	11	1	4		16

이 집을 기와집에서 제외한다면 나머지 7집 모두는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전에 지은 모든 기와집들은 남쪽이나 동쪽에서 진입하고, 서쪽에 구새를 두었다. 예전에는 풍수를 보아 座向을 잡았을 것이라는 가정은 이러한 확실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와집들에서 보이는 이러한 座向의 확실성은 오히려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즉 주택의 座向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구새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서쪽에 배치하고' 하는 식의 기능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또는 구새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서쪽이 되도록 배치하고 길에서의 진입 위치를 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平面이나 構造에 있어서 기와집들과 별 차이를 가지고 있는 초가집들을 포함하여 座向을 고려해 본다면 초가집들의 座向은 이러한 확실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예전 住居들의 座向은 확실적인 방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에 지어진 소위 '새마을' 지역('다 구역')은 남북방향의 도로체계에 의한 정연한 직각좌표계로

구성된 일정한 구획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길에서 바로 진입하여 외양간, 부엌, 정주간, 옷방의 순서로 방들이 배치되어 구새는 출입구의 반대편에 있게 된다. 즉 구새의 방향은 예전과 달리 확실적으로 진입위치와 반대가 된다. 작업을 마치고 소를 우선 외양간에 들여 놓는다든지<sup>18)</sup> 혹은 방문객들을 정주간에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 기능적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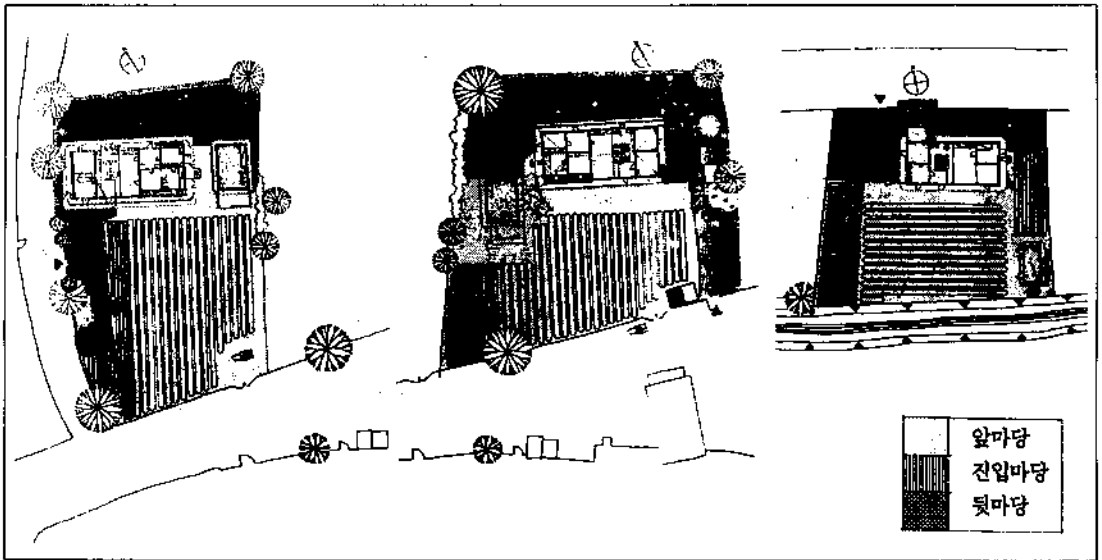
### 3-5. 주택 내에서의 배치

#### 1) 마당의 분화

마당은 대체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주택은 대지의 중앙에서 뒤편에 위치하여 남향을 취하고 있다. 마을 북쪽에 언덕이 있고 남쪽에 강이 있어서, 자연적인 경사를 이용하여 배수가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마을 전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한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뒷집과의 고저차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뒷담은 축대를 겸하여 돌담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띈다. 나머지 울타리는 예전에는 사람 키 이상의 長材를 이용하여 둘러쌌다(이때문에 '長材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까지도 장재를 많이 이용하여 그 이외에 잔가지들 종류로 혹은 횡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마당은 대체로 진입마당, 앞마당, 뒷마당의 3 부분으로 구분된다. 진입마당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출입뿐 아니라 농기구들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이중으로 된 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는 아직도 농사일에 있어 중요하게 이용되므로 진입마당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외양간을 둔다. 진입마당의 한 편에는 거의 대부분 돼지 등의 축산용 우리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닭, 오리 혹은 돼지를 키우는 데 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놓아 키우기

18) 문화혁명기에는 목축을 금하였다고 하므로 각 집마다 외양간을 두지 않았을 지도 모르나 이 시기에 지어진 집들의 현재의 평면은 앞에서 설명한 순으로 되어 있다. 벼농사에 있어 필수적인 소의 사육은 인정하였는지, 혹은 당시에는 농사작업에 관련되었던 창고를 현재 외양간으로 개조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 서쪽에서 진입하는 유형 : 립성범씨 덕 2) 남쪽에서 진입하는 유형 : 리중순씨 덕 3) 북쪽에서 진입하는 유형 : 신통순씨 덕

그림 5. 장재촌의 마당

때문에 이들로부터 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낮은 울타리를 별도로 둘러 진입마당과 앞마당을 구분하고 있다. 앞마당은 비교적 넓어 주로 담배를 경작하거나 온상을 두며, 농작물의 수확후 운반을 위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큰 문을 도로에 면해 두고 있다. 이들 마당과 뒷마당의 사이에도 대부분 엄격하게 울타리를 두어 구분하였다. 뒷마당은 텃밭으로 이용되어, 보통 채소를 키우거나 과일 나무가 심어져 있다. 뒷마당은 그 외에도 농기구를 보관하는 외부 수장공간의 의미도 가진다.

<그림 5>는 대표적인 가옥들의 마당을 보여 준다. 남쪽에서 진입하건, 서쪽에서 진입하건, 혹은 북쪽에서 진입하건 이러한 마당의 분화는 가축으로부터의 농작물의 보호라는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주택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확보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폐쇄적인 平面형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양통집 構造에서 내외 구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통은 정주간으로 직접 출입하도록 하나 옷방으로 통하는 남자들이든 앞마당을 통해 퇴를 통하여 출입하며, 남자들의 공간은 독자적인 외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퇴가 점차 사라져 가는 경향은 내외구분이 없어지고, 남자들의 공간을 독립시킬 필요가 없어 집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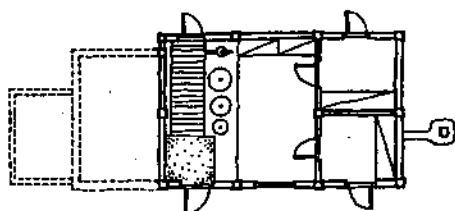
## 2) 부속채

부속채인 '사랑채'는 남한에서 생각하는 손님접대 위주의 공간이 아니고, 주로 곡식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영시설이며 최근에는 이를 외양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또한 예전에 黃煙을 재배할 때 사용하던 담배건조장이 아직 남아있는 집들도 제법 있다. 이 부속채들은 <표 5>에서 보다시피 대체로 집의 서쪽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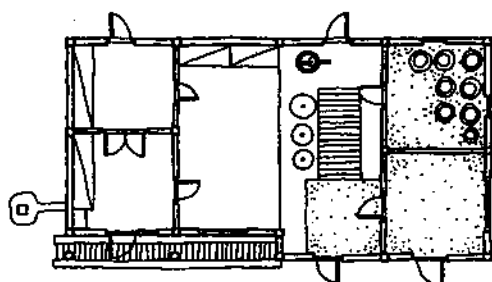
부속채의 構造는 모두 간단한 襖집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본채와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부속채는 순전히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의 진술<sup>19)</sup>에 의하면 예전의 큰 집들에서는 살림채 앞쪽 좌우에 두 채의 사랑채를 두었고, 머슴을 두지는 않았으나 사랑채에는 고용일꾼들이

19) 마을 주민 리중순 씨의 진술. 리 씨(70세)는 마을에서 원로급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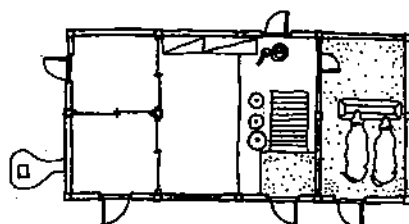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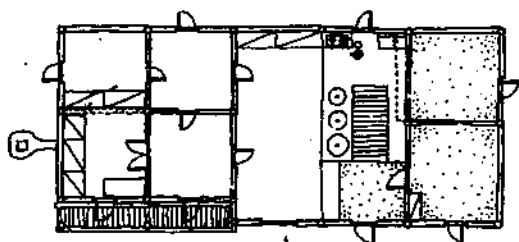
4간집 방기철씨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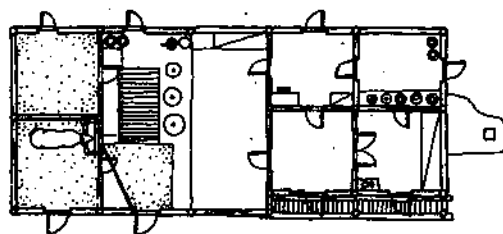
6간집 김만수씨 대



6간집 최철준씨 대



8간집 리종순씨 대



8간집 림성범씨 대

그림 6. 장재촌의 양통식 평면유형

#### 4-2 외통 構造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양통집인데 반해 몇 채의 외통집 계열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림 7>에서 보이는 리용철씨 대이며, 리종삼씨 대은 애초의 외통집 構造에서 뒷부분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외통집은 횡으로 증축하기도 하는 데 이것의

예는 최동석씨 대에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주간이 있는 외통집 構造는 평안도식이라고 여겨지며, 集安에 이러한 예가 많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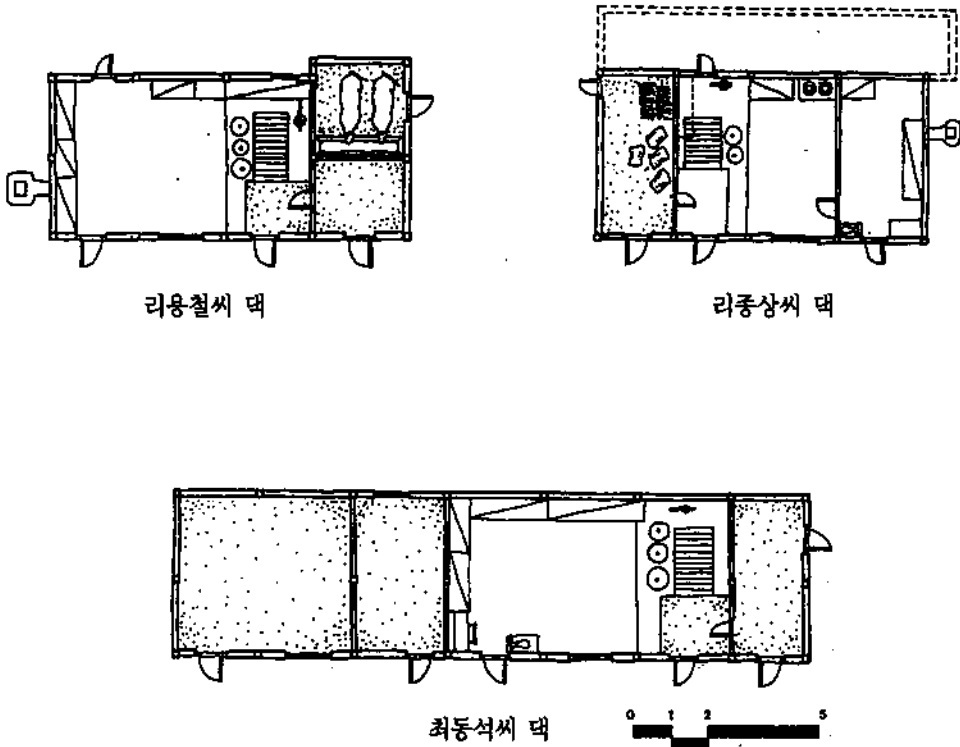


그림 7. 장재촌의 외통식 평면유형

5. 주택의 建築 構造

5-1. 建築 構造 상의 特徵

양통집은 외통집에 비해 큰 재목을 이용하게 되는 데 개척마을인 만큼 그 결구기술은 간단하다. 그러므로 자영농민들에게 짓기 쉽고 살기 편한 構造가 된다. 주택의 平面構造가 그런 것처럼 이들의 架構法 역시 漢族과 다르다. 먼저 기둥을 세우고 보와 도리를 걸친 후 그 위에 동자기둥을 얹고 나서 마루도리를 얹는다. 長財村의 재대로 갖춘 8칸 집에 사용한 목재는 제법 굵은 목재들이나 그 가구법은 비교적 단순한 5량構造로 되어 있다. 지붕의 경사는 하연이 별로 급하지 않으며, 상연은 매우 급하게 들어올리는 것이 特徵이다. (그림 8 참조)

기둥은 흙기단 위에 덩벙주초를 깔고 그 위에 올려 놓았으며, 하인방은 주초와 연결되어 있다. 기둥

과 도리 및 보의 접합부는 사기맞춤으로 되어 있으며 보가 주두에서부터 1자 정도 밖으로 돌출하며 그 밑에 삼각형의 단이를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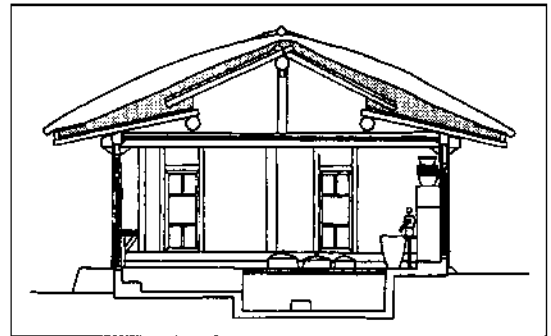


그림 8. 김만수씨 덕 단면도

표 7. 주택의 규모/ 유형

구분		구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계	비 고	
		조사수	조사수						
				68	18	25	111		
규모/ 유형	6 간 집	4간 -> 6간	-	1	-	1	67채 (60%)		
		6간	24	7	10	41			
		6(통) 간	14	5	6	25			
	8 간 집	6간 -> 8간	12	1	3	16	30채 (27%)		
		8간	8	1	-	9			
		8(통)간	1	3	1	5			
	변형			9	-	5	14	14채 (13%)	

표 8. 지붕재료별 분포

구분		구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계	비 고
		조사수	조사수					
				68	18	25	111	
지붕 재료	초 가			51	17	18	86	78%
	조선기와			7	-	1	8	7%
	현대식 기와			10	1	6	17	15%

5-2. 建築 要素別 特徵

1) 지붕의 형태 및 재료 : 지붕의 형태는 본체의 경우는 우진각이나 합각이 많으며, 부속체의 경우는 예외없이 간단한 構造의 뱃집형식으로 되어 있다. 해방전에는 기와집이 많았다고 하나 현재 기와 집은 8채에 불과하며, 앞으로 새로이 기와집을 짓기는 재료 사정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형상은 약간 어설픈 합각이나 우진각이다. 처마가 짧고 건물 폭이 넓어 남한의 기와집과는 비례가 다르다. 그러나 기와집이건 초가집이건 그 構造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초가는 두께를 30-50cm로 하여 뿌리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덮는다. 漢族의 초가가 역새나 밀을 이용하여 두껍게 덮어 자주 갈 필요가 없는 데 비해 2년에 1회 정도는 갈아야 한다. 서까래 위에 산자널을 깔고 그 위에 진흙을 10-15cm 정도 바른 후에 지붕을 덮는다.

지붕재료 별 가옥수는 구역별로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에서 보듯이 長財村의 주택은 초가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기와집은 '가 구역'에 전체 8채 중 7 채가 있다. 기와집의 형태는 조선 기와집에서는 합각 4채이고 우진각이 3채로 우진각의 비율이 제법 높은 데 반해, 현대식 기와로

지은 집들은 3채의 예외 이외에는 모두 합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대식 기와로 지은 집들은 대부분 그 構造가 조적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합각의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합각을 연상시키는 형태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조선 기와집들이 '가 구역'에 집중되어 있고 오래된 집들이 데 반해 현대식 기와집들은 최근에 지어진 집들에서 이용되며 이들은 어느 지역이나 지어진다고 보여 진다.

2) 처마 : 처마는 기후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건축요소이다. 조사지역에서 외형상의 特徵 중의 하나는 짧은 처마였다. 이것은 민가로서 構造를 간단히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으나, 여름이 그리 길지 않고, 겨울의 추운 기후 때문에 실내가 햇볕을 많이 쬐 수 있도록 처마를 짧게 한 것이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처마 깊이가 짧은 것은 또한 퇴의 발달을 막기도 하였다. 퇴의 용도는 추운 기후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도 하나 처마가 짧아 비바람에 노출되면 그 내구성도 그리 좋지 못했을 것이므로 퇴는 제법 까다로운 構造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 9>는 長財村 주택들에 대해 퇴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퇴는 가 지역의 주택에서만 보이고 나머지 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연대적으로 보면 해방 후에 지은 집들은 모두 퇴가 없다. 그러므로 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외구분이 없어지고 주인 남성이 거주하는 옷방으로의 별도의 통로가 없어지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 9. 퇴의 유무

구분	구역 조사수	가	나	다	계	비 고
		구역	구역	구역		
		68	18	25	111	
퇴의 유무	있음	13	-	-	13	12 %
	없음	55	18	25	98	88 %

3) 벽의 構造 : 벽은 내력벽이 아니어서 그리 두껍지 않다. 보통 12cm 정도인데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잔가지로 엮은 다음, 양면에 황토를 바른 후 안쪽에는 벽지를, 바깥쪽에는 회를 바른 構造이다. 근래에 들어 신축하는 경우에는 벽돌을 사용하는데 남쪽 정면의 경우에는 1.5B 쌓기, 나머지 3면은 1B쌓기<sup>20)</sup>를 하고 있다. 기타의 단열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나 이 정도의 벽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나머지 3면에는 고방 등을 배치하여 거의 개구부가 없으며, 생활에 주로 이용되는 방들은 남쪽을 면하기 때문이다.

4) 창호 : 방들을 연결하는 실내의 창호들은 잘 다듬은 판자문으로 된 여닫이가 예전의 집들에서 사용되었으나 요즘은 미닫이로 변천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부로 면하는 창호는 대부분 외곽 미닫이이다. 출입문은 예전에 사용되었던 세살문이 남아 있는 집이 제법 되며, 남쪽 창호의 상부에는 고창이 남아 있기도 하나 많은 경우 막아버렸다. 예전에는 정주간의 남쪽에 큰 미닫이 창문을 두었으나, 요즘에는 일률적으로 2중창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2중창 사이의 간격에는 간단한 수장공간으로 쓰이며, 외부에 면하는 모든 창호는 비닐을 덮어 겨울을 대비하고 있다.

5) 구새 : 장재촌의 구새는 두께 1cm 정도의 판

20) 중국의 벽돌은 크기가 24cm×12cm×6cm로 비교적 크며, 각 지역에 벽돌공장을 두어 자급자족식으로 필요량을 공급하고 있다.

표 10. 기단의 유무

구분	구역 조사수	가	나	다	계	비 고
		구역	구역	구역		
		68	18	25	111	
기단의 유무	있음	57	11	22	90	81%
	없음	11	7	3	11	19%

자를 약 25cm 각으로 만든 유형이 가장 흔하다(판구새). 그러나 현대식 건물 등에서는 벽돌構造로 된 경우가 있으며, 오지토판을 이용한 경우도 가끔 있고, 특별히 두 집에서 통나무를 이용한 구새가 보인다. 이것은 통나무 안을 톱밥 등을 이용하여 태워서 구멍을 뚫어 통채로 구새로 이용한 것이다(통구새). 구새는 벽에서 90cm 정도 떨어져서 처마에 붙여 세우며 처마보다 1m 정도 높게 세운다. 구새의 방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6) 기단 : 長財村의 주택들은 알기는 하지만 기단을 두었다. 기단의 종류는 흙을 돋아 올린 기단이 많으며, 격식을 갖춘 집에서는 막돌을 이용하여 1층의 기단을 둔 경우도 있다. <표 10>은 기단의 유무를 보여준다.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 기단을 가지고 있다. 단지 '나 구역'만이 기단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제법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흙기단이다 보니 마당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지어진 현대식 집들은 모두 기단을 높게하여 2자 이상으로 하고, 외부는 시멘트로 마감하고 있다.

### 6. 최근의 경향

남녀구분이 없어지고, 핵가족화 함에 따라, 住居의 平面에서 보여진 변화는 온돌방의 분화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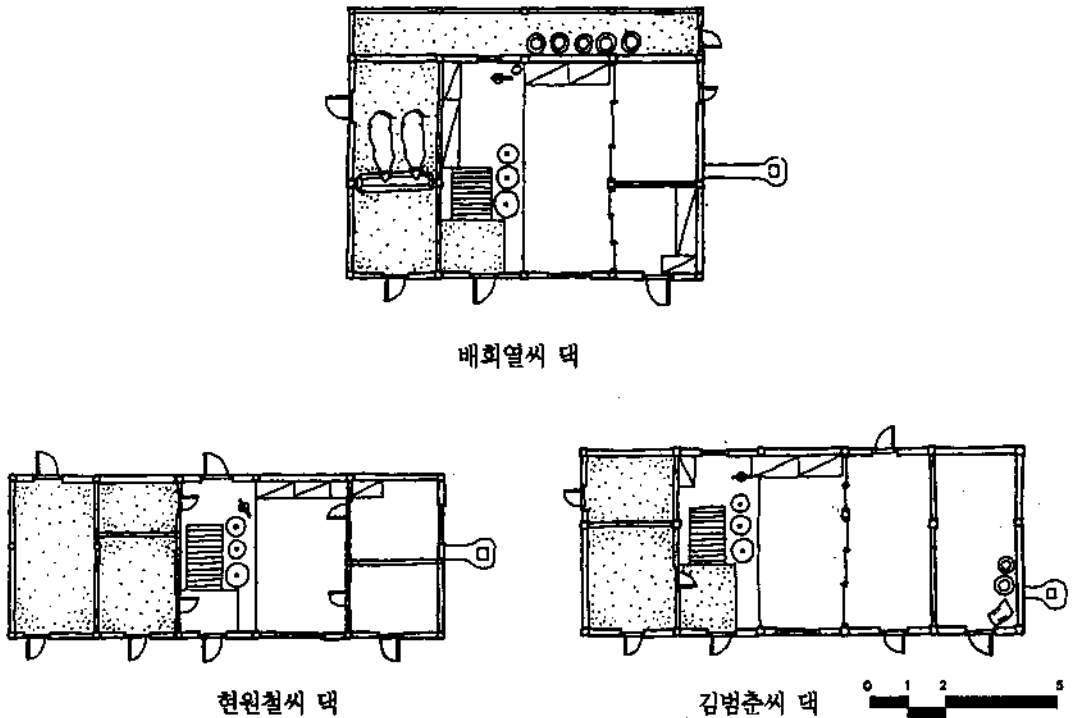


그림 9. 최근의 경향 : 수장공간의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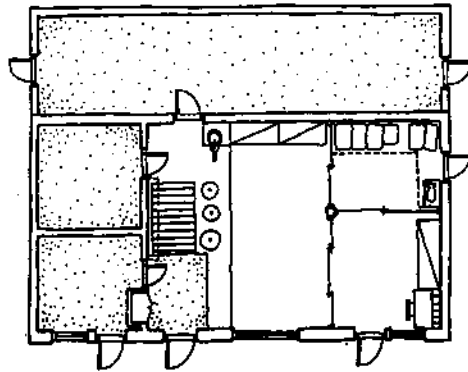
저서 방들은 통간화하였다. 모든 방들을 구분하던 벽構造를 미닫이문 構造로 바꾸어 필요에 따라서는 넓은 정주간 방 하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平面이 근래에 생겨났다. 또한 이것과 같이 생겨난 경향이 사유재산의 인정에 따라 생겨난 경영시설의 확장이 특징적이다. 경영시설은 외양간쪽으로 두는 경우와 고방 뒤쪽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長財村의 주택들은 약 38%가 증축을 근래에 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경향은 <표 11>에서 보인다. 주택의 후면과 외양간 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수장 및 경영공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참조).

영농의 기계화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소는 농업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집집마다 소를 기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겨울을 지내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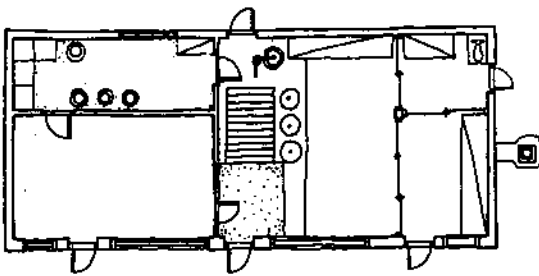
해 외양간을 독립시킨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겨울에

표 11. 증축 여부 및 증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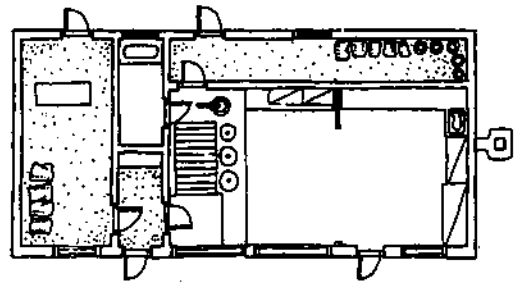
구분	구역 조사수	가	나	다	계	비 고
		구역	구역	구역		
	68	18	25	111		
증축 여부 및 증축 방향	비증축	40	12	17	69	62%
	옷방 방향	6	1	1	8	7%
	외양간 방향	8	3	3	14	13%
	후 면	12	2	4	18	16%
	좌우면	2			2	2%



신동민씨 대



최철준씨 대



신동익씨 대



그림 10. 현대식 평면 유형

는 소를 외양간에서 기르지만 여름에는 밖에서 기르는 데, 주로 집입구 근처의 공터에서 기른다. 이들을 붙들어 매어 두기 위한 성인 키 정도로 굵은 막대인 '소말뚝구리'를 마을 도로의 도처에 두고 있다.

延邊지역은 최근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 마을에도 최근에 들어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그림 10 참조). 특정한 구역의 구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 주택들은 현관을 별도로 독립시키고, 화장실을 실내에 갖추기도 하였다.

가족수가 단출하여 모든 방의 구분을 없애고 정주 공간 하나로 이루어진 통간식 평면이 최근의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수장공간을 위한 고방은 북쪽에 길게 두어 부엌에서 진입하기 쉽고,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長財村에 가장 많은 6간집들은 8간집으로 증축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농사에 관계되는 수장공간이 더 필요하므로 고방이나 외양간, 또는 수장공간을 덧붙이는 평면형식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통간화하기도 하였다.

## 7. 결론

長財村은 19세기 말 조선으로부터 이주한 초기의 개척민들이 정주하기 시작하여, 그 시기의 양통식 住居平面 형식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사회제도의 변화나 최근의 근대화에 따른 간소화된 住居 平面까지도 모두 잘 보여 주고 있다. 마을의 길 체계에서도 이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해방 후 새로이 형성된 구역에서는 남북 방향의 길로부터의 진입위치와 반대로 구새가 위치하여 규칙적인 배치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전부터 형성되어 온 구역에서는 동서 방향의 길을 위주로 하여 전면에서 진입하여 주택의 서쪽, 혹은 동쪽에 비규칙적으로 구새를 두었다. 그러나 조선기와로 지붕을 이은 집들의 경우만 한정한다면 오른쪽이나 전면에서 진입하며, 구새는 모두 왼쪽에 두는 것이 典型으로 나타난다. 수효가 얼마 되지 않는 기와집만으로 선불리 결론지을 수는 없겠으나, 이 점은 중요하다고 보인다. 즉 예전의 집에 있어서는 주택의 平面을 먼저 정하고 나서 진입 방향,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의 방향까지도 정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長財村의 주거들은 다음과 같은 통계적 特徵을 가진다.

- 1) 지붕은 초가가 월등히 많다(77.5%).
- 2) 규모 및 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6간형이 가장 많으며(63.1%), 점차 8간집으로 증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증축하는 방향은 방을 늘리는 경우보다 외양간 쪽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후면에 공간을 늘린 경우를 포함시켜 보면 농가로서 수장공간을 증축 필요성을 보여 준다.
- 3) 이러한 증축의 경향은 근래에 들어 개방화 정책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하자 살림규모가 늘어나 생긴 경향이기도 하고, 또 한가지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규모가 작아서 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 4) 부속채는 전체 가옥의 과반수 이상이 두고 있으며, 대체로 서쪽에 두고 있다. 부속채를 두는 방향은 전체 배치의 座向과도 관계 있겠으나, 도로나

작업으로부터의 진입 방향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5) 6간집이건, 8간집이건 방을 나누지 않고 통간화하는 경향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것은 대가족 제도로부터 핵가족화의 추세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6) 퇴는 점차 사라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해방 후에 지어진 집에서는 퇴를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내외구분이 없어지면서 생긴 경향이라고 보여진다.

장재촌은 中國에 위치한 마을이어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社會構造 상의 차이에 의해 철저한 실측조사가 어렵다. 또한 조사기간을 길게 할 수도 없었으므로 생활방식과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한 깊이 있는 조사도 어려웠다. 또한 연구자들이 마을에 머물면서 관찰에 의해 파악한 사항들도 몇 가지의 경우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본, 추정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分析이 아닐 수도 있다. 한 마을의 住居 類型을 밝히는 작업은 그 마을의 물리적인 요소들만을 分析해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족한 점들이 보완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문화혁명 당시의 변화가 현재의 마을 구조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예전 지주의 넓은 집터를 쪼개어 여러 세대로 균등하게 분배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물리적 상황만 가지고는 예전의 모습을 추정할 길이 없어 유감이다. 그러나 함경도식의 平面構造는 살림채에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이 지역은 함경도에서 이주한 朝鮮族들이 정주하여 함경도식의 양통식 平面構造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평안도에서 이주한 朝鮮族들이 정주한 長白 朝鮮族自治縣에는 외통식 平面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 지역도 조사한다면 개척 이민들의 住居형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택 : 「延吉朝鮮族 民家」, 『朝鮮族民俗研究』 제1권, 延吉, 1933
- 김숙련 외 : 『中國 延邊』, 김영사, 서울, 1991
- 김홍식 : 『한국의 민가』, 한길사, 서울, 1992
- 리종목 : 「우리나라 농촌주택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평양, 1961
- 장보용 :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출판사, 서울, 1981
- 조성기 : 「한국민가에 있어서의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2호, 1983
- 황철산 : 「우리나라 과거주택의 유형과 그 형성발전」, 평양, 1989
- 한상복 + 권태환 : 『中國 延邊地區의 朝鮮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1992
- 愼武岷 : 「北鮮地方の住宅について」, 『朝鮮と建築』 19-12, 1940
- 張馭寰 : 『吉林民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北京, 1983

#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h'ang-ts'ai-tsun Village

A Case Study on a Rural Village of the Korean immigrants  
in Yen-Pien Area of China

**Shin, Jai Eok**

(University of Ulsan, Associate Professor)

## ABSTRACT

This paper is one of the sequels from 'A Survey of Villages and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t is the result of the extensive survey of Ch'ang-ts'ai-tsun village and covers sever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welling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double file' dwelling type, which is believed as one of the main stream of Korean folk dwelling. In this type, 'Chung-ju-kan' forms the central open space, where main household functions are carried out. This type originates from climatic reasons and functional reasons as well. This paper also aims to clarify how the dwelling for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life styles of various periods.

The Korean immigrants in this village have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modern times like other Chinese. Through various political movements, the original dwelling type of this village has changed to adapt various needs and functions, which shows the simple truth : dwelling for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life style and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chimney through various periods are analyzed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house layout methods and concepts of the time. The village had grown through 3 main periods : before liberation period(1946), communization period(1946 - 1966) and contemporary period (1967 - ). It is concluded as follows:

1. The village was originated in late 19th century along the east-west street, which was a major routes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 In this area there was no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hich was usually westward, was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gate. This type was kept until liberization of this area, 1946. The plans of dwellings followed Ham-kyong-do 'double file' dwelling type, '6-kan dwelling' or '8-kan dwelling'.

2. The 'New Village' area, which was formed in the communization period, has a strict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as determined as opposite direction of the gate. This method was maintained until 1976, when Mao died and new 'open' policy was held by Chinese government. In this area the 'dwelling house' plan type was not changed, but its layout and size were restricted. The general form of the dwelling in this village was shaped in this period.

3. The contemporary dwellings were built in random site location. The dwelling type was changed because of the reduction of family size and the permission of private ownership. The number of rooms was reduced but the storage rooms and domestic animal hutches were added. But the 'Chung-ju-ka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north-eastern Korea dwelling is still kept. It becomes one large 'Chun-ju-kan' room like 'open plan' type.